

신라 보상화문 수막새의 제문제

김민식
세종문화재연구원

- 1. 머리말
- 2. 보상화문 수막새 화판 배치의 문제
- 3. 보상화문 수막새의 분류에 대한 문제
- 4. 맺음말

1. 머리말

그동안 신라의 연화문 수막새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지만 삼국통일 이후 등장하는 다양한 문양의 수막새는 연화문 수막새에 비해 출토되는 시기도 상대적으로 짧고 수량도 적게 확인되어 연구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통일신라시대의 여러 문양의 수막새를 주목하였고, 그 중 연화문 수막새 다음으로 많은 양으로 확인되는 보상화문 수막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석사학위 논문¹⁾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던 점과 연구 이후 드러나는 여러 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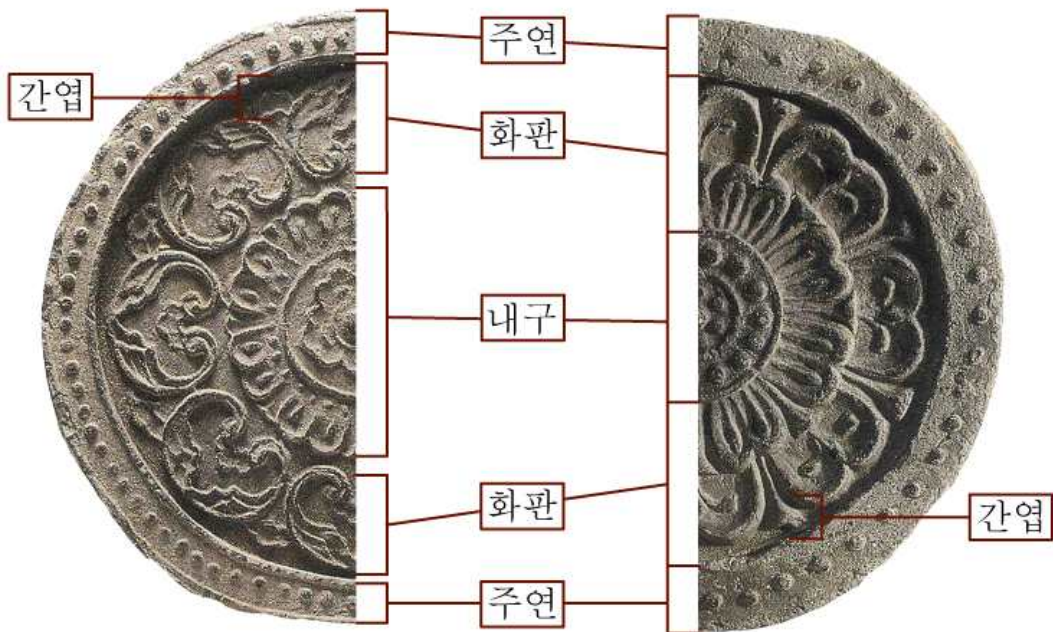


그림 1. 보상화문 수막새(좌)와 연화문 수막새(우)의 각부 명칭

1) 김민식, 2019, 「新羅 寶相華文 수막새의 變遷」,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점이 남아 본고에서 짧게나마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보상화문 수막새 화판 배치의 문제

통일이후 신라는 주로 사용하였던 연화문 수막새 이외로 보상화문 수막새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막새를 제작,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력을 소모하며 제작하여 국가 중요시설인 왕궁, 사찰에 납품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양의 막새는 이전과 같이 어느 정도의 기준, 법칙을 두어 제작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당시의 와공은 어떠한 기준으로 새로운 문양의 보상화문 수막새를 제작하였을지 이와 관련하여 먼저 보상화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다.

보상화는 불교계에서 나타나는 문양 중 하나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양이 보상화인지 명확한 정의와 규정, 기원이 없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보상화문의 정의는 근대 일본의 이토 쥬우타(伊東忠太)가 팔매트잎이 인동문과 비슷하여 ‘인동문(忍冬文)’으로 처음 번역하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팔매트잎과 인동덩굴은 서로 다른 기원이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현재는 팔매트잎, 인동덩굴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마치 화려한 꽃을 연상케 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보상화문이라고 정의한다.²⁾

보상화문의 기원은 연화문을 변화시켜 제작하였다는 설, 아욱과의 불상화(佛桑花)를 문양화하였다는 설, 모란(牡丹), 작약(芍藥), 부용(芙蓉) 등의 꽃을 바탕으로 팔매트(Palmette)문과 당초문을 활용하여 보상화를 제작하였다는 설 등이 있다.³⁾

또한 보상화는 理想化된 꽃으로 불교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는 꽃이다. 보상화는



그림 2. 고식 수막새(좌)와 초기 보상화문 수막새(우)의 화판 배치도

2) 그림 1 의 연화문 수막새와 보상화문 수막새의 문양의 차이를 참조.

3) 長田 玲子, 1988, 『世界大百科事典』, 平凡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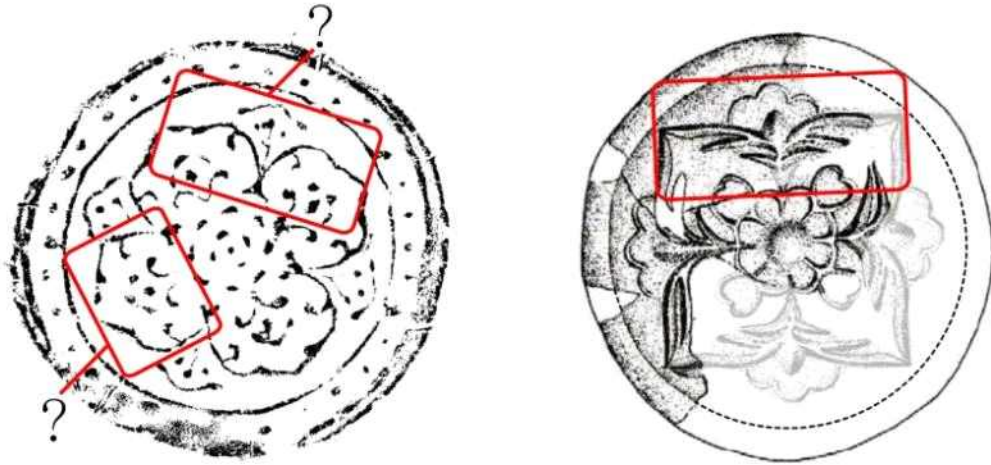


그림 3. 8세기 중반이후 등장하는 보상화문 수막새의 문양배치도 (좌:분황사 출토, 우:발해 상경성 출토)

옛 성인이 득도를 하였을 때, 성인이 천계에서 내려올 때, 다시 천계로 올라갈 때의 광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천화가 흩날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⁴⁾

보상화의 전파는 7세기를 전후로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양식이 성립되어 둔황을 거쳐 唐에 전파되고 인근 동아시아 국가에 전해졌다.⁵⁾ 신라가 보상화문 수막새를 중국으로 받아들인 것은 7세기 중후반경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보상화문 수막새의 화판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의 자엽은 어떠한 배치를 하고 있었을까. 먼저 연화문 수막새의 자엽을 살펴보면 타원형, 종형, 둔각형 등의 일반적인 ‘잎’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양은 통일 이후에도 복판, 중판, 세판 등의 화판이 등장하여 크기, 배치 등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 모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7세기 중후반 이후의 초기 보상화문 수막새 역시 연화문 수막새의 모양 배치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와 같이 초기 보상화문 수막새는 기본적으로 두 덩굴이 꽃(보상화)을 감싸며 한때의 꽃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배치한다. 간엽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초기의 보상화문 수막새는 연화문 수막새의 문양배치를 따라가는 모양새로 문양구성을 이루었다.

그러나 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초기의 문양과 함께 전혀 다른 양상의 보상화문 수막새가 등장하게 된다⁶⁾. 그림 3 과 같이 자엽의 개념이 애매모호해진다. 즉 기존의 보상화 + 두 덩굴의 세트관계의 형식에서 간엽 + 두 덩굴이 한 세트를 이루는 형식의 막새가 등장하게 된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발해 상경성, 서고성 출토 보상화문 수막새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보상화문과 당초문(寶相華文과 唐草文)」, 『한국고고학사 진』.

5) 국립경주박물관, 2000, 『신라와전』.

6) 김민식, 앞의 논문.

이와 같은 문양의 등장은 자엽의 보상화와 덩굴, 간엽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기하학적 문양의 연속성을 보여주어 미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형식은 발해, 일본 등지에서도 확인되어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보상화문 수막새의 분류에 대한 문제

보상화문 수막새의 자료정리를 하면서 보상화문 수막새를 연화보상화문, 인동보상화문 등과 같은 용어로 분류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는 화판, 내구를 이루는 꽃의 모양에 따라 구분한 용어이다. 그러나 그림 4 와 같이 경주 출토 사자문 수막새의 화판은 대부분이 심엽형의 보상화문, 가릉빈가문 수막새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복판의 연화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용어의 정립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통일 이후 등장하는 다양한 수막새의 명칭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현재에도 뚜



그림 5. 사자문수막새(좌)와 보상화문 수막새(우)의 화판에 배치된 보상화문



그림 4. 경주 월성 출토 사자문 수막새(좌)와 가릉빈가문 수막새(우)

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자문 수막새의 보상화문은 기존의 보상화문과는 다른 양상을 하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심엽형이지만 기존 보상화문 수막새에 비해 짧고 도식화되어있다. 이는 복잡한 문양의 막새를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와범으로 제작하지 못하고 내구의 크기를 어느정도 조정하여 극소량의 와범으로만 막새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보상화문 수막새는 뚜렷한 경계 없이 다종다양한 문양으로 여러 수막새에서 사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더 세밀한 문양 분석으로 보상화문 수막새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4. 맺음말

보상화문 수막새를 연구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편년의 문제였다. 보상화문 수막새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약 2~3세기, 신라에서는 약 150년 안팎으로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기종은 다양하게 등장하여 세세한 편년을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앞선 두 문제 또한 이 문제에서 드러났다. 보상화문 수막새의 기술적인 제작기법도 90% 이상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며 문양 또한 일정한 패턴 없이 다양하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에 연구는 미술사적 관점에서 문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기술적, 문양적 관점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연구는 교류사적 관점에서 발해지역, 중국, 일본등지에서 확인 되는 보상화문 수막새를 바탕으로 신라 보상화문 수막새의 기원과 소멸까지의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민식, 2019, 「新羅 寶相華文 수막새의 變遷」,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長田 玲子, 1988, 『世界大百科事典』, 平凡社.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보상화문과 당초문」, 『한국고고학사전』.
국립경주박물관, 2000, 『신라와전』.